

중에 있고, 금명간에 발표되면 보다 오늘 발표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 제주 4·3사태와 주변성의 문제 사태 논의의 방법을 위한 하나의 시론

玄 吉 彦(漢陽大)

### 1. 제주 사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1) 최근에 들어와서, 제주지역 문제 중에서 4·3사태에 따른 여러 일들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태가 종식되어 35년이 넘었는데도, 그 동안 이 사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고식적으로 은폐하거나, 시류에 의하여 안이하게 논의해서는 극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2)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변적 기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 편향적 인식이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좌파 재일 교포들의 주관적 보고서와, 일부 진보적 재민 학자들에 의한 몇 편의 논의가 전부였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정치 상황이 풀리면서 정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관변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도 시류적인 데 편향하거나 관변적 인식의 부도덕함에 대한 일종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감상적인 인식에 기울어져 있어 또다른 취약함을 지니고 있다.

최근 서울이나 지방 여러 대학에서는, 제주 4·3사태 연구회라는 학생서클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도내외에서도 소그룹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자료 수집을 통한 사태의 실상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현지조사, 문헌기록 정리, 체험 증언 채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3) 이러한 조사 연구 활동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조사 성과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결과물 도모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참여자의 비전문성, 그 동기의 시류성, 그 인식 방법의 비학문성 그리고 그 규모의 취약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학문적 성과

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이를 통하여 제주 4·3사태에 따른 여러 문제가 치유되거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앞서 제기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가 학문적 또는 정치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발표는, 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확산과 그 심화를 위하여, 그 조사 논의의 방법에 대한 예비적 시론의 일단을 제기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

## 2. <주변성>의 개념 : 제주 사태 인식의 한 준거로서

1) 주변성은 정치 경제학적인 주변부와도 다른 개념이면서 또한 그 개념의 일부를 포함하기도 한다.

2) 주변성은 문화전과 현상에서의 주변성, 즉 중심문화와 상대되는 의미의 주변 문화와는 그 개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한편 그러한 성격을 다소 포함하기도 한다.

3) 이 논의에서 주변의 개념 한계는 위의 1)과 2)의 개념과 부분적인 성격을 공유 하면서 또한 그것들의 혼합성을 띄기도 한다. 즉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는 1)의 성격을 다소 포함하고, 이데올로기의 본산인 중심부와 상대되는 지역적 주변성의 측면과 중심부의 주변 지역의 상호 관계에서는 2)의 성격을 다소 포함하기도 한다.

4) 또한 이 논의에서 주변성은, 중심부와 상대되는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집단심리적 요소들 동시에 포함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특성을 예비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1) 지리적으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다.

(2) 정치 문화에서 이데올로기 본산인 중심부가 모든 부문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주변 지역에서는 중심부의 이데올로기나 문화적 그늘에 들어가는 하지 않는 그것에서 보다 많이 이탈되어 변종을 이루고 있다.

(3) 중심부는 전통적인 토대가 확고하지만은 주변 지역은 그 토대가 취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고 항상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변칙적 욕망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4) 주변성은 중심부를 지향하기도 하지만은 반발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5) 이러한 개념 설정은 가설적인 것이며, 그것은 제주의 문화적 특성과 특히 제주 4·3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제주>의 주변적 성격

### 1) 인문 지리적 측면

(1) 본토와 떨어져 있다.

(2) 제주인은 토착민과 유입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유입인의 경우에 정치 사회경제적으로 중심부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심부에 대한 지향성과 그 반역성을

함께 지낸다.

## 2) 역사적 측면

(1) 탐라부족국가를 형성했던 제주는 삼국 이후 본토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종속적인 주변 지역으로 전락한다.

(2) 그 결과 부족국가의 독자성이 약화되면서 차차 중앙 정부의 한 행정 지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통제체제에 흡수된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독자성을 유지하게 된다.

(3) 지리적으로 본토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행정부재 지역이 된다. 이는 제주에 중심부적 토착세력(양반 유림)이 구축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관심 밖 지역이기 때문이다.

(4) 목사 현감 등 지역 행정 책임자는 조정에서 임명된 외부인이거나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교분을 유지한 본도인이다. 본도인의 경우에도 철저히 중심부 지향적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서 주변성은 심화된다. 그 결과로 제주는 중앙정부의 서자적(庶子的) 지역이 된다.

(5) 근대 이후의 제주는 의세 침략의 교두보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혀 현지 주민의 의사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 3) 문화적 측면

(1) 제주문화는 본토 고유의 문화와 외래문화의 습합으로 형성되어 다원성을 지니면서, 한국문화라는 총체성 속에서 융화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유지하게 된다.

(2) 수렵문화와 농경문화, 해양문화와 농경문화가 습합됨으로 인해 다원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표층적 지배 문화는 농경문화로서 중심부적이지만, 이면에는 본토 고유의 문화양식이 상존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 지향적이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저항적 요소를 공유하게 된다.

(3) 제주 언어구조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제주사투리가 본토와는 다른 특이한 구조와 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제주 사람들의 언어의식이나 현실은 표준어 지향적이다. 또한 타지역의 방언에 쉽게 동화된다. 현지 언어현실에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공존한다.

(4) 설화구조의 이중성에서 친이데올로기성과 반이데올로기성이 공존하고 있다.

(5) 가치에 대한 진보적 의식과 보수적 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양반지향적이면서 반양반의식이 강하다.

## 4. 제주 4·3사태의 주변성

이러한 제주의 역사 문화적인 요소와 성격은 주변성과 통하는데, 이러한 점은 제주 사태에도 나타난다. 그것은 본토에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변동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지역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으면서 도민의식에 의해 변칙적 양상으로 분출하게 된다.

1) 해방 직후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의 한계

제주도는 중심부인 서울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정치 소외지대였다. 그 한 예는, 건준과 인공에 대한 도민의 지도와, 입법위원 선거에 좌익인사들이 당선되었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2) 제주 사태에 대한 군정당국의 인식과 그 대응 과정

(1) 진압 우선주의

군정당국은 진압 우선주의로 사태 해결을 도모했다. 그 한 예로, 조병옥 경무부장이 내도(47.3월과 4월)하여 진압 강경 방침을 세워 외부인으로 조직된 단체(철도 경찰, 경찰 응원대, 서북청년단원 등)를 투입했다.

(2) 이들은 제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여 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강경책으로 무력 진압을 했다.

(3) 제주 사태를 미군정 및 중앙 정치세력의 정치적 명분에 의하여 고식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지역 주민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3) 사태 성격의 모호성

(1) 혁명 논리와 전략이 취약했다.

혁명, 반란, 저항 그 어느 성향도 뚜렷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교두보적 역할을 제주가 맡는다는 측면도 현실성이 약하고, 그렇다고 분리주의적 입장에서 제주 독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의도도 설득력이 없으며, 단순한 군정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저항으로는 그 도가 심하다.

(2) 혁명적 정치적 전략의 취약성

제주도 봉기(폭동) 또는 반란이 남한의 공산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비전략적이고 감상적이다.

(3) 제주는 공산 혁명(반란)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다.

지주와 소작인 관계,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나 반상의 구별도 침해하지 못한 지역이다.

(4) 주도 세력의 계급성 문제

제주 사태 지도부는 공산혁명 세력으로서의 계급적 성격이 취약한 계층들이다. 썩 퍼 브르조아들, 낭만적 혁명론자,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성격이 강한 인사들이 주도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제주 4·3사태는 공산 혁명 전략상으로 볼 때에도, 혁명의 정통성에 이탈된 일종의 변종적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남로당이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5. 사태 이후의 처리 문제

1) 제주 4·3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간에, 그 사태는 일제 식민 통치와 동서 냉전 체제의 부산물인 역사 변동기 정치적 변란이었음에도, 그 사건을 폭동으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나 대책이 전무했으며, 그로 인해 도민의 정신적 상처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구나 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도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이렇게 사태에 대한 관심까지도 철저히 통제되고 금기시되어 30년을 넘겨왔다. 이런 점에서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도 철저히 주변적이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태에 대한 관심과 논의나 연구도 특수한 분야나 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사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나 처리도 주변성의 범위 안에 갇혀 있다.

## 6. 제주 사태와 주변성, 그리고 그 논의를 위한 제언

1) 제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주변적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적 정황이 아니라,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2) 제주 4·3사태도 정치적 혁명적 전략적 측면에서 주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태 종식 후의 논의나 인식의 틀과 방법까지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4·3사태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그 방법과 논의를 개방하여 중심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성과도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주도하여, 지금까지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다양한 자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검토 평가하여, 좀더 진전된 결과를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소그룹들이 연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 濟州島 住民의 正體性

金 恒 元(濟州大)

### I. 序 論

#### 1. 研究目的

濟州島住民들은 韓半島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생활해오는 동안 육지와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예측이 된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은 누구인가?>, <제주도 주민은 무엇인가?>, <제주도에 특이한 것 또는 독특한 것은 무